

도서지역의 국제화와 인종정치 : 하와이의 경우

장 원 석*

목 차

- I. 서 론
- II. 비패권주의 현상의 분석
- III. 인종투표
- IV. 원주민문제
- V. 결 론

I. 서 론

제3의 물결이 초래한 지구촌화 현상은 한편으로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가능케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해체와 분열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범지구적 역설을 초래하였다. 특히 후자의 현상에 주목할 때 평가는 양면적이다. 새로운 사회는 한편으로 개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긍정하는 공존의 철학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동체윤리가 파괴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 질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종문제와 관련시켜 고찰할 때, 규범적인 차원에서 21세기는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는 평등사회의 이념을 구현할 것이며 모든 집단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교유의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의 세기가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문명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인류사회는 도처에서 근본주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국제화는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정체성의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하와이는 동서문명의 교차점이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일찍부터 국제주의를 중요한 사회적 에토스로 수용해 왔으며, 관광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필연적으로 다수의 인종이 진입하였고 복수의 문화가 경합하였다. 그러나 하와이는 인종적 조화와 화해의 사회적 신화를 성취하였다.

* 제주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글은 우선 하와이를 성공적인 다문화공동체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수용하여 인종적 조화의 본질과 배경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가정에 도전하는 두 가지 주제로서 인종투표와 주민운동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인종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조화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 작용하는 인종정치의 역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종적 평등의 이념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를 할 것이다.

II. 비패권주의 현상의 분석

아더 쉘레진저(Arthur M. Schlesinger, Jr.)는 미국의 인종문제를 심각히 우려한 자신의 저서 『미국의 해체: 다문화사회에 대한 성찰』(1992)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새로운 인종적 복음은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는 개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종으로 통합하는 전망을 부정하고 있다. 그것의 근본철학은 미국을 개인들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 집단들로 구성된 국가로 보는 것이며, 대부분 미국인들에게 인종은 미국을 규정하는 경험이 된다. 따라서 인종적 유대는 항구적이고, 인종공동체의 분리는 미국사회의 기본구조이다...”¹⁾ 쉘레진저는 분리주의적 경향으로 인종적 갈등을 겪고 있는 소련, 유고슬라비아, 인도, 북아프리카, 스리랑카, 키프로스,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수단, 자이르, 가이아나, 트리니다드 등 수 많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인종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이념과 공통의 문화를 시급히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인종적인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발칸화현상(balkanization)을 모면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근래에 심각히 제기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전통적인 백인의 우위가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매해 1백만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1971년부터 1990년 사이 이민자의 85%가 제3세계 출신이다. 인구학자 레온 부비어(Leon Bouvier)는 아시아 태평양으로부터의 이민사태에 주목하여 그것을 ‘태평양의 침입’²⁾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de-WASP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1960년에 백인인구는 미국인구의 88.6%였다. 1990년 그 숫자는 75.6%로 떨어졌으며, 2020년에는 61%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비어에 의하면 15세 이하의 경우 비백인 인종집단의 인구는 이미 다수에 접근하고 있다. 다인종사회로의 진입은 인종 상호간에 조화와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하와이의 사례는 이에 대해서 하나의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하와이는 다인종사회이면서도 인종적인 편견과 갈등을 극복한 모범적 사회이다.³⁾

1) Arthur M. Schlesinger, Jr.,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Norton, 1992), p. 16.

2) Leon Bouvier, *Pacific Invasions: Immigration and Changing America*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2).

3) 1920년대에 이미 하와이의 다문화현상은 하와이대학교 사회학교수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검토되기

우선 하와이의 역사를 간단히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778년에 제임스 쿡 선장이 유럽인 최초로 이 섬에 상륙했으며 1810년 카메하메하(Kamehameha) 1세가 최초로 하와이를 통일하였다. 1830년대에 시작된 사탕수수산업은 이 곳에 상품경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기간 산업이 되었다. 사탕수수와 파인에플 농장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1852년의 중국인 노동자를 선두로 포르투갈, 독일, 일본,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유입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서 필리핀인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건너왔다.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1840년대까지는 지배집단의 기독교 개종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서구의 법체계가 도입되었고, 토지의 사유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1887년에 백인 사업가들은 총칼로써 서구식 정치체제를 강요하여 불평등한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다수의 하와이인들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자주주의가 강했던 릴리우오카라니(Lili'uokalani)여왕이 주권회복을 시도하자 미국군대는 자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893년에 왕조를 전복시키고 사이비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898년 하와이는 미국에 강제합병되었다. 이후 하와이를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키려는 공화당 백인집단의 노력은 1937년 연방의회에서 좌절되기도 하였으나 하와이는 1959년에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인되었다. 유색인종과 노동자 집단의 지지에 힘입어 1954년에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이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관광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산업구조를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백인 대신 일본계 주민이 새로운 사회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오늘날 하와이의 인구는 110만이며 40여개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인은 최대 단일집단으로 전 인구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계 주민이 23.9%로 2위이다. 하와이 원주민과 부분적으로 하와이 원주민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집단이 19.9%, 필리핀 출신 주민이 11.3%이다. 나머지 21.1%는 중국계, 한국계, 사모아인, 동남아 국가 및 기타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다인종사회로서 하와이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각 인종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때 미국사회를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에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와이는 미국의 일부이면서도 가장 비미국적인 사회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문화를 창조해냄으로써 하와이가 조화의 공동체를 건설했다는 사실이다. 성공적인 다인종사회로서 하와이의 탄생은 복합적 요인의 산물이며 몇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하와이 발전의 사회경제사와 관련이 있다. 문화충격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원주민인구가 급감하여 일손이 부족해지자, 백인농장주들은 외부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1885년부터 1929년 사이에 35만 여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유입되었으며 이

시작하였다. 이들의 작업은 초기 이민사회에 대한 귀중한 연구업적들을 남겼다. 특히 앤드류 린드(Andrew Lind)는 하와이가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마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가정을 경계하면서도, 하와이가 공개적인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알로하 정신(aloha: spirit of racial tolerance)의 실재를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Andre Lind, *An Island Community: Ecological Succession in Hawa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8); idem, *Hawaii's Peopl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55); idem, *Hawaii: The Last of the Magic Isles* (New York: Institute of Peace Relations, 1969).

에 따라 하와이 원주민은 소수집단으로 전락하였다. 5개의 재벌로 재조직되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완벽한 계급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된 백인 지배집단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격리시키고,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시켰으며, 심지어 반목을 조장하는 등 분리와 지배(divide and rule)의 전략을 채택하였다.⁴⁾ 각각의 인종집단은 상이한 거주지역을 할당받았으며 식량이나 의료의 제공,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신분을 확인하는 인식표가 사용되었다. 어느 인종집단이 농장노동에 먼저 투입되었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임금체계가 적용되었고 이 역시 불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인종집단 상호간에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1909년과 1920년에 일본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 필리핀 노동자의 대체투입으로 사태가 종결되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증명하였다.

그러나 백인농장주들은 각각의 인종집단 내부에서 고유한 언어, 종교, 교육, 음식, 관습이 보존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인종상호간의 유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최소한의 양보조치였다. 이 당시 본토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미국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⁵⁾ 1916년 호놀룰루를 방문했던 영국의 소설가 섬머셋 몸(W.Somerset Maugham)은 하와이 사회가 보여주는 다문화적 풍경에 감탄하며 그곳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였다고 묘사하였다.

20세기에 들어 백인과 유색인종, 혹은 유색인종 상호간에 몇 번의 충돌 - 살인 혹은 납치 등의 사건 - 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종적 폭동으로 비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백인들은 수적으로 소수였던 까닭에 유색노동자집단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행위를 회피하였으며, 유색노동자집단 역시 농장노동 이외의 직업기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삶의 터전의 상실을 우려하여 격한 행동을 자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농장경제가 해체되면서 사회적 카스트제도 역시 종말을 고했다. 전쟁을 계기로 부와 특권을 소유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백인인구 - 군인, 기술자, 육체노동자 등 - 가 본토로부터 유입되었고 이들은 유색인종집단과 더불어 기득권세력에 도전하였다. 일본계 주민과 연대한 이들 백인 집단은 부두노조와 창고노조를 정치적 자원으로 하여 민주당을 재건하고 전직 경찰관출신인 존 번즈(John Burns)를 지사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무혈혁명을 이룩한 민주당정부는 관광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농장경제의 잔재를 청산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폴리네시아 특유의 정치문화이다. 하와이왕조는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혐오하는 알로하(aloha) 정신의 전통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들은 일찍이 백인의 진출에 관대하였고 여타의 유색인종에 대해서 사해동포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인종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미국의 상인들은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피한 아프리카인이 하와이에서 직장과 부인을 얻고 국왕과도 친교를 맺는 사실에 놀랐으며, 하와이왕조의 어느 왕자는 미국 방문 당시 그곳에서 목격된 인종차별정책에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인구학적인 결과이다. 섬내에 거주하고 있는 백인여성의 부족으로 미국인 선

4) Glen Grant and Dennis M. Ogawa. "Living Proof: Is Hawaii the Ans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No. 530 (November, 1993), p. 146.

5) 물론 1920년대에 YMCA나 YWCA에 의한 서구화 노력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교사들은 백인과 非기독교도 유색인종의 결합을 승인하였으며, 독신노동자들 역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거주를 결심하면서 상이한 인종간의 결합이 가속화되었다. 1991년의 경우 새로 결혼한 부부의 45.9%가 서로 다른 인종간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하와이에서 여러 개의 인종적 배경을 갖는 주민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종적 편견을 약화시키는 마지막 요인은 세대의 교체와 더불어 습득된 다문화적 생활방식의 등장이다. 이민 제1세대가 자신들의 인종적 유대를 고집했다면, 제2세대는 학교교육과 놀이터를 통해서 문화적 상호작용의 과정 속으로 돌입하였다. 특히 하와이 원주민 자녀와 이민 노동자 자녀의 접촉은 이질적 삶의 방식에 대한 적응 효과를 제고시켰다. 아시아 인종의 경우 하와이 원주민 가정과 마찬가지로 대가족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가족 내부에서 습득한 자기절제의 성품은 대인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작동되었다. 인류학자들이 “최대최소의 원칙(mini-max principle)”이라고 불렀던 이들의 생활방식은 공동체의 유대를 최대화하며 개인적 이해를 최소화하는 규범을 구성원들에게 강조하여 다인종 사회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⁶⁾ 또한 다인종 사회속을 살아나가기 위한 공리적 전략으로 자신을 낮추는 습관이 보편화되었다. “ain't no big thing” 중후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생활태도는 일상적인 농담 속에서 자신이 속한 인종집단의 약점을 우선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전체사회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⁷⁾

그 결과 새로운 지방문화(local culture)가 건설되었다. 그것의 본질은 한편으로 다양성을 추구하여 각 인종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편성을 모색하여 공통의 문화를 창조하는데 있었다. 베르나르 호만(Bernhard L. Hormann)이 피진문화(pidgin culture)⁸⁾라고 명명했던 혼합문화의 탄생으로 지방적 정체성(local identity)이 확립되었고, 하와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을 상실함 없이 인종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관행을 확립하게 되었다. 피진문화는 하와이 공통의 언어와 음식, 관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가령 하와이의 영어는 표준영어와 다른 독특한 억양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하와이 지방 문화의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하와이인들은 자신들 상호간에 조상의 고향을 이야기하지만, 외부인에 대해서는 로칼(local)이라고 답변한다. 호놀룰루의 한 대학은 하와이 사회로 새롭게 진입하는 외부인들을 위해서 로칼 킴치어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세기의 하와이 역사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적 이해와 결속을 통해서 공통성을 추구하는 사회화 과정이었다. 하와이가 보여주는 교훈은 다수 인종집단의 정체성의 유지가 반드시 분열로 나아가지 않으며 반대로 진정한 공동체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가지 흥미있는 점은 비록 공개적인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인 조롱과 헐담이 인종집단 상호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와이에서 ‘백인자식’, ‘거만한 일본놈’, ‘게으른 원

6) Glen Grant and Dennis M. Ogawa. "Living Proof: Is Hawaii the Answer?" p. 150.

7) *Ibid.*, p. 151.

8) 호만의 개념은 John F. McDermott, Jr., "Toward an Interethnic Society," in *People and Cultures of Hawaii: A Psychocultural Profile*, ed. John F. McDermott, Jr., Wen-Shing Tseng, and Thomas W. Marezki (Honolulu: John A. Burns School of Medicine 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0), p. 228에서 검토되었다.

주민' 등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입자는 하와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천명되는 인종적 우의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은밀한 차별에 종종 당황하고 분노하게 된다.⁹⁾

성공적인 다인종사회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를 갖고 있다. 그것은 실질적 평등의 문제이다. 유색인종의 경우 일본계와 중국계 주민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소득수준이 높다. 그러나 하와이 원주민과 필리핀계 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가령 관광산업의 경우 최고관리자는 외부에서 진입한 백인들이며 중간관리자는 최고학부를 나온 현지인들로 충원된다.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들은 대부분 원주민이거나 필리핀계 주민들이다. 흑자는 이러한 인종적 지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종집단의 각성과 노력으로 상황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근래에 들어 필리핀계 주민들의 정치적 부상이 두드러지며 하와이 원주민 역시 자치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신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Ⅲ. 인종투표

인종을 초월한 조화사회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인종문제는 하와이 정치의 중요한 변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집단적인 인종투표의 존재여부가 쟁점이 되어왔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이전에 특히 두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인종투표가 하와이 정치의 특유한 현상이 아니며, 미국 본토를 비롯한 모든 다인종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다만 하와이의 경우 인종초월적 사회의 신화가 문제될 뿐이다. 둘째로 투표에 있어서 인종집단의 결속이 병리현상으로만 속단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정당한 기제에 의해서 조절하려는 노력이며 인종투표는 정상적인 이익표출과정의 한 단계일 수 있다. 일탈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인종투표는 위험한 수준의 사회적 갈등과 동일시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와이 정치와 인종투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2개의 가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현저한 인종투표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투표에서 인종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힐로(Hilo)의 하와이대학교 제임스 왕(James Wang)교수는 집단적 인종투표현상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는 이에 대해서 네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¹⁰⁾ 첫째로 정책이슈의 성격이 인종적 고려에 우선한다. 더구나 각 인종집단은 여러 개의 섬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지역적 문제가 더 증시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이차대전 이후에 성취된 선거혁명으로 민주적 사회가 실현되었으며, 모든 인종집단은 정치과정상에서 공정한 몫을 부여받았다. 셋째로 모든 구성원들이 상대집단의 반발을 의식하여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입후보결정에 인종적 균형을 배려하기 때문에 집단적 편향은 불가능하다. 마치

9) Glen Grant and Dennis M. Cgawa, p. 148.

10) James C. F. Wang, *Hawaii State and Local Politics* (Hilo: University of Hawaii at Hillo, 1982), pp. 84-85.

막으로 폴리네시아 특유의 관용의 정치문화가 작용한다. 인종적 호소는 대중으로 하여금 반발 심리를 갖게 만들며 선거에서 실질적인 패인이 된다. 왕교수에 의하면 간헐적으로 인종투표현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낯선 인물들이거나 혹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들일 경우이다. 하와이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존 디그만(John Digman) 역시 1954년과 1957년의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당선택이 투표에서 결정적인 변수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Digman은 인종변수가 일정한 정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근접전인 경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인 자제심이나 명분론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종적 변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자들보다도 정치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더 잘 인식하고 있다. 인종투표현상을 주목하고 있는 West Oahu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단 보이란(Dan Boylan)은 인종정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정의 심리'(psychology of denial)¹¹⁾를 지적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와이에 인종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는가? Boylan은 하와이에서 인종정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세가지 심리적 계기를 지적한다. 첫 번째 계기는 최대 유색인종집단인 일본계 주민들의 태도 변화이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주민들은 모국의 군국주의를 지켜보면서 미국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불안해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전쟁은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들 집단은 끊임없이 의혹의 눈길을 받아야 했으며, 차별적 대우를 감수해야만 했고, 일부는 본토의 수용소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기방어의 차원에서 일본계 젊은이들은 자진해서 참전하여 자신의 애국심을 증명하려 하였다. 일본계 주민들은 훌륭한 미국인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독자적인 행동을 삼가했으며, 투표장에서는 다른 인종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 그것은 일종의 죄의식의 산물이었다. 두 번째의 계기는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취했던 태도이다. 1930년대 중반부터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을 시도하였다. 본국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와이 인구 중 백인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남부의 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인종사회의 등장으로 인종문제가 제기될 때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하와이 사회의 백인 지도자들은 하와이가 다인종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본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미국으로 완전히 동화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리적인 계산과 신사의 품위의 문제이다. 어떤 집단도 지배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인종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예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전혀 도움이 안된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자는 다수의 인종집단을 포섭해야하며 인종적 대화는 선거본부 안방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1959년 하와이가 주로 편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피부와 출신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그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이란은 우선 소수집단의 자기이익방어가 인종투표의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본토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목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흑인, 히스패닉 계통 등 모두가 자

11) Don Boylan, "Blood Runs Thick," in Zachary A. Smith and Richard C. Pratt, eds. *Politics and Public Policy in Hawaii*.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pp. 73~77.

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서 선거를 이용하고 있다. 하와이로 이주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당정치와 퇴조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 역시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인데,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미디어정치의 효과와 정치행동위원회의(PAC) 등장으로 정당은 자신의 역할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정당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종적 고려는 정치적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196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권력을 독점해온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본질적으로 인종카드의 적절한 활용에 있다.¹²⁾ 1962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일본계인 이누예(Daniel Inouye)를 상원의원에, 백인인 번즈(John A. Burns)를 지사에, 하와이원주민계인 윌리엄 리차드슨(William Richardson)을 부지사에, 중국계인 허버트 리(Herbert Lee)와 백인인 톰 질(Tom Gill)을 하원의원에 입후보시켜 5개의 공직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였다. 24년이 지난 1986년 선거 역시 전략은 마찬가지로 모든 인종집단에게 호소할 수 있는 대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누예를 상원의원에, 백인인 닐 에버크롬비(Neil Abercrombie)와 하와이원주민계인 단 아카카(Dan Akaka)를 하원의원에, 하와이원주민계인 존 웨이히(John Waihee)를 지사에, 필리핀계 벤 카예타노(Ben Cayetano)를 입후보 시켜 승리하였다.

하와이 공화당은 1986년 주지사 선거에서 주로 편입된 이후 최초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민주당의 일당독주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며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공화당은 유능한 행정관으로 능력을 검증받았고 지난 20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보여주었던 포투투갈계의 앤디 앤더슨(Andy Anderson)을 후보로 지명하고 있었으며, 또한 호놀룰루 시장을 세차례 역임했던 민주당의 거물정치인 프랭크 파시(Franf Fasi)를 영입하여 선거를 지원토록 하고 있었다. 파시는 하와이인과 필리핀 출신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소망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인종카드를 구사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하와이원주민 계통의 존 웨이히를 지사 후보로, 필리핀계인 벤 카예타노를 부지사 후보로 지명하여 두 인종집단이 최초로 최고의 공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일본계 미국인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제3, 제4의 인종집단을 적절히 이용하여 하와이 민주당은 다시 한번 승리하였다.

1984년 하와이 주 하원의원의 선거를 분석해보면 인종적 변수와 결합된 투표행태를 추론해볼 수 있다. 51개 선거구 중 60%의 선거구에서 다수 인종집단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한 인종집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선거구 23개 중 20개에서 지배적 인종집단의 후보자가 승리하였다. 이들 통계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백인은 백인에게, 일본계 미국인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필리핀인은 필리핀인에게, 하와이원주민은 하와이 원주민에게, 중국인은 중국인에게 투표를 한다는 사실이다.¹³⁾

12) 따라서 하와이 민주당의 내분은 인종적 扮裝의 본질을 폭로한다. "Ethnic Pineapple Salad," *The Economist* (October 20, 1990).

13) Don Boylan, "Blood Runs Thick," p. 72. 로렌스 폭스(Lawrence Fuchs)는 1958년 선거 후 패배한 후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종투표의 한 유형으로 프링킹(plunking)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것은 연기명식 투표의 경우 잠재적 경쟁자의 추격을 뿌리치고, 혹은 압도적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지자 1인에게만 투표하여 나머지 1인을 사장시키는 경우이다. 특히 중국인 유권자들에게서 이

민주당의 당료로서 수십년 동안 선거운동을 책임졌던 로버트 오시로(Robert Oshiro)는 1989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선거운동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각각의 인종집단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상기시키려 하였다. 1960년대에 우리는 인종적 요인이 하와이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오늘날 그것은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거는 수의 경기이다. 백인과 일본인은 가장 강력한 지배집단이다. 오늘날 필리핀계가 부상하고 있으며 보트피플,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태평양군도인들이 밀려오고 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위치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백인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들은 농장노동자들과 달리 집단적으로 이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 않다.”¹⁴⁾

1984년 하와이 공화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제임스 홀(James V Hall)은 171개 오하우섬 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와 시장선거를 분석한 후, 2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인종정치가 오하우에 여전히 살아있다. 백인들은 압도적으로 레이건(Reagan)에게 투표하며, 그 보다 다소 덜 프랑크 파시에게 투표한다. 일본계는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아일린 앤더슨(Eileen Anderson)에게 투표하며, 그 보다 다소 덜 먼데일(Mondale)에게 투표한다. 필리핀인은 압도적으로 파시에게 투표하며, 그 보다 다소 덜 레이건에게 투표한다. 하와이원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파시와 레이건에게 투표한다.”¹⁵⁾

제2차세계대전 후 하와이 민주당은 인종투표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왔다. 과거 40년 동안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전담해왔던 마이크 도쿠나가(Mike Tokunaga)는 인종문제가 선거운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다고 회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어디를 가든 ‘같은 무리끼리 어울리는 것’(Birds of the same feather flock together)은 보편적 현상이다.”¹⁶⁾ 1974년 이후 *Advertiser*의 여론조사책임자로 활약하고 있는 게리 케어(Gerry Keir)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종이야말로 하와이에서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지표는 거주기간과 소득수준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종보다 훨씬 효과가 미약하다. 인종만큼 중요한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¹⁷⁾

1976년과 1986년을 예로 들어, 각 인종집단의 정당선호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러한 경향이 현저히 나타났다. James C. F. Wang, *Hawaii State and Local Politics*, pp. 87~88.

14) Don Boylan, “Blood Runs Thick,” pp. 76~77.

15) *Ibid.*, p. 73.

16) *Ibid.*, p. 73.

17) *Ibid.*, p. 71

〈표-1〉 인종과 정당

	1976년			1986년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백인	44	30	26	33	43	24
일본계	58	11	31	68	9	23
하와이원주민	49	17	34	46	21	33
필리핀인	77	9	14	41	24	35
중국인	40	29	31	37	20	43
기타	n/a	n/a	n/a	44	21	35
합계	52	18	30	45	27	28

출처 : Zachary A. Smith, *Politics and Public Policy in Hawaii*, p. 71. 1984년에 하와이 부지사실 조사정보과에 의해서 제공된 1984년 선거와 인종적 배경에 관한 공식자료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민 3세대, 4세대, 5세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더욱 혼합적이 되었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념도 점차 희박해지기 시작하였다. 1988년 하와이에서 출생한 어린이의 55%가 혼합적 인종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들은 어느 정당에 대해서 충성을 보일 것인가? 이들 새로운 세대의 주요한 관심사는 인종적인 고려보다는 물질적인 혜택과 실리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상대적으로 공화당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종투표의 약화로 공정한 게임이 전개될 것을 기대하는 하와이 공화당 당의장인 앤디 앤더슨(D.G. Andy Anderson)은 앞으로 민주당의 우위가 종식되고 공화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게리 케어는 이 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가 갖고 있는 통계는 아직까지 인종투표를 이탈하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이크 도쿠나가 역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령 3세대 일본계 미국인 젊은이의 경우, 평소에는 후보자가 어느 정당인가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투표소에 들어서면 그들은 인종적인 선택을 행한다. 부모들로부터의 영향이 그곳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⁸⁾

IV. 원주민문제

오늘날 하와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하와이 원주민 문제이다. 과도한 개발의 폐해는 특히 하와이 원주민집단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¹⁹⁾ 대륙

18) *Ibid.*, pp. 77~78.

1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Haunani-Kay Trask, "Native Hawaiian Nationalism in Hawaii," in Smith, Zachary A., and Richard C. Pratt(eds.) *Politics and Public Policy in Hawaii*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Haunani-Kay Trask, "Hawaiians, Americanization, and the Quest for Independence," *Social Process in Hawaii*, Vol. 31 (1984), pp. 102~135; Paul F. Hooper,

으로부터의 질병 유입과 문화충격으로 신체적인 약화과정이 진행되었으며 평균수명이 단축되었고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백인이 최초로 하와이에 상륙했을 당시 50만 이상으로 추정되었던 원주민 인구는 오늘날 순수혈통의 경우 5천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독교와 시장제도의 도입은 원주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파괴시켰다. 토지 공동소유의 전통, 타로(taro) 농사, 고유의 언어와 종교, 춤과 노래가 사라지고 있으며 진정한 알로하 정신은 상업화되었다. 1990년 하와이 교회협의회는 관광산업으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를 경고하고 그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주장한 바 있다. 하와이 원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토지를 매도하고 도시로 진출한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직업기회는 경쟁력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직종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였다. 성공을 거둔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원주민 집단은 하층계급으로 전락하였다. 그들의 거주지역은 게토(ghetto)화 되었고 사회적인 일탈자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원주민은 인종별 수감자 대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1960년대 말 하와이 원주민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다.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는 원주민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농촌지역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유의 관용정신으로 한 세기 이상 고통을 감내했던 하와이 원주민들은 결국 붕기하였다.

1971년 5월 11일 비숍(Bishop)재단²⁰⁾의 사유지인 오하우 섬의 카라마 계곡에 거주하고 있던 일단의 주민들이 재단의 강제철거에 대항하여 투쟁을 선언하였다.²¹⁾ 다수의 원주민을 포함한 150여 세대가 비숍 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후 수십년 동안 이곳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거주해왔다. 재단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거주민에 대한 철거를 명령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착수했을 때, 이들은 생활의 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주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 당국과 재단에 대해서 거주민 재 이주 계획수립을 요청한 바 있으며 상원 역시 주정부가 토지를 구입하여 거주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재단은 이를 거절하였다. 철거작업의 강행으로 대부분 이곳을 떠났으며 일부는 새로운 정착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3가구가 마지막까지 재단의 요구를 거부하고 투쟁을 감행하였다. 당시 베트남 전쟁을 문제삼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항거하던 대학의 운동집단이 여기에 가세하였으며, 사회인사들에 의한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주민들은 당국의 원주민 주택정책의 실패를 성토했다. 거주민들을 후원하는 지지자들은 계곡의 입구에 참호를 파고 재단 경비원들의 내

Elusive Destiny: The Internationalist Movement in Modern Hawaii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0): Noreen Mokuau, "The Impoverishment of Native Hawaiians and the Social Work Challenge," *Health and Social Work*, Vol. 15, No. 3 (August, 1990), pp. 235~242; Edith Terry, "Trouble in Paradise: Ethnic Movement for Self-Rule Gains Momentu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1 March, 1993), pp. 32~33; Joye Mercer, "Native Hawaiians Push to Extend and Deepen University's Diversity,"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August 3, 19~94).

20) 비숍 재단은 19세기에 하와이원주민의 한 족장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재단은 하와이 토지의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금으로 하여 원주민자녀를 위한 사교육기관인 Kamehameha School을 운영해왔다. 재단의 이사는 하와이 대법원에 의해서 임명되는데 선교사계통의 백인기업가집단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하와이인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공화당원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와이 상류사회의 Who's Who 이다.

21) 카라마계곡 사건에 대해서는 Hunani-Kay Trask, "The Birth of the Modern Hawaiian Movement: Kalama Valley, Ohau," *Hawaiian Journal of History*, No.21 (1987), pp. 126~153 참조.

습에 대비하였다. 최초로 투쟁은 백인 마르크스주의 운동가 집단의 가세로 계급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으나, 곧 원주민 투쟁위원회는 백인의 관여가 적에게 빌미를 준다는 이유로 그들의 철수를 정중히 요구하였고, 백인운동가 집단은 투쟁이 순수한 인종문제로 치환되는데 대해서 크게 좌절하였다. 이 무렵 투쟁위원회는 원주민과 백인을 구분했지만 아시아계통의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현지주민의 개념으로 포용하였다.

강제철거의 과정은 TV로 방영되었는데 철거에 참여한 불도저의 운전사 역시 원주민이었다는 사실로 비극은 심화되었다. 저항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나 가담자들은 결국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된 후 그 해 8월 유죄판결과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주민들과 운동가들에 의해서 정부 및 비습 재단을 상대로 한 항위와 시위가 수개월동안 계속되었으며 「Kokua Kalama」 ("Help Karama")라는 투쟁조직은 「Kokua Hawaii」 ("Help Hawaii")로 확대 개편되었다. 백인기업가의 이익을 대변해온 보수적 지방신문인 『어드버타이저』 (Advertiser)는 사설에서 이제 하와이가 토지이용의 문제에 관하여 심각한 고민을 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낙원의 이미지로 채색되었던 하와이의 또 다른 현실을 폭로하고 하와이 원주민의 민족의식을 자극함으로써 본격적인 하와이 주민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카라마 계곡의 투쟁으로 점화된 70년대 초의 주민운동은 개발업자, 주 정부, 사유자본의 횡포에 저항하는 현지주민(Local)의 생존권투쟁이라는 양상을 보였다. 현지 주민이라 함은 원주민과 하와이에 장기 거주한 비원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시아계 이민집단의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개발에 대한 거부감으로 주민 상호간에 일체감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르면서 운동은 인종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시작하였다. 현지주민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운동의 방향은 하와이 원주민(Native)의 생존권투쟁으로 정착되었다.

1972년에는 비습재단을 감시하기 위한 단체가 조직되었으며, 1973년에는 리조트개발을 위한 강제철거를 거부하는 여러 개의 주민운동조직이 결성되었다. 1974년에는 해변가를 점거한 원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여 전통적인 어촌을 건설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75년에는 이주를 거부하는 어민들의 투쟁이 있었고 하와이 원주민을 위한 정치단체가 출현하였다. 1976년에는 도서지역에서의 폭격훈련을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977년에는 병원이전을 거부하는 나병환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1978년에는 힐로(Hilo)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과 지지자들의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1980년에는 원주민들에 의한 불법적인 문화촌 건설이 시도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원주민운동은 과거의 소극적인 개발반대 투쟁에서 벗어나 지나간 역사 - 왕조전복과 강제합병 - 에 대한 정부당국의 사과와 보상, 토지의 반환과 하와이 문화재건, 자치권의 회복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운동은 정치적 투쟁 외에도 법률적 투쟁을 병행하였는데 특히 토지문제는 운동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다.²²⁾

22) 토지반환논쟁에 대해서는 Randall W. Roth, *The Price of Paradise*, pp. 198~203; Edith Terry, "Trouble in Paradise: Ethnic Movement for Self-Rule Gains Momentum," p. 33; Norman Meller, "Policy Control: Institutionalized Centralization in the Fiftieth State" in Smith, Zachary A., and Richard C. Pratt(eds.) *Politics and Public Policy in Hawaii*, pp. 23~24. Haunani-Kay Trask,

그들은 우선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원주민 거주를 위한 신탁토지가 용도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보상과 신탁토지의 지배권을 주장하였다. 1920년 미 의회는 50% 이상의 혈통을 갖는 하와이 원주민을 위한 定住계획(homestead plan)을 수립하였다. 곧 정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만 에이커의 신탁지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계획은 지지부진하였고 토지의 일부가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국가기관 혹은 주 정부 기관에게 양도되었으며 심지어 사기업에게 임대되었다. 1959년에 관리권을 이양 받은 주 정부에 대해서 원주민 단체들은 신탁지의 지배권이전과 과거의 불법적인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을 동시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운동은 점차 합병으로 빼앗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898년 당시 하와이 공화국은 미국정부에게 120만 에이커의 토지를 할양했는데 당초의 약속과 달리 토지운용 수입금은 하와이 원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1980년에 와서야 수입의 일부가 지급되었으며 이후 협상은 미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누적적 보상액의 산출이 문제가 되었다. 원주민 단체들은 상기의 두 종류 토지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의 부분적인 반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원주민 운동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문화적 투쟁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하와이 언어와 종교, 춤과 노래, 타로 농사, 토지의 공동체적 사용 등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방식을 강조하였으며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려 하였다. 그들은 정신적인 탈식민화라는 맥락에서 투쟁의 모든 용어를 하와이 고유의 언어로 통일하였다. 하와이 원주민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는 정신성의 승배,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 대한 성찰, 가족의 중요성 강조이다.²³⁾ 그들은 토지를 생명의 요람으로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적 사용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오후 섬의 30%가 군사기지화 된 사실을 항의하였고 1976년에는 군사폭격 훈련지였던 카호오라웨(Kahoolawe)섬을 점거하여 신성한 토지의 군사적 파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990년에 2명의 운동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는 후 폭격훈련이 중단되었고 이 섬은 역사적 유적지로 지정되었다. 원주민 운동의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는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와 자본주의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갖게 만들었으며 일부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이들의 사고 방식의 퇴행성을 문제삼기도 하였다.

원주민 운동은 최종적으로 자치권의 회복을 표방하였다. 자치권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선과 이념이 추구되었는데 구 왕조의 재건, 독립된 주권공화국의 건설, 연방헌법 한계 내에서의 제한적인 주권 향유, 인디안과 같은 민족적 지위의 확보 같은 주장은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일부 운동단체들은 「블랙 팬더」(Black Panther)와 같은 과격한 흑인투쟁조직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으며 인디안 투쟁조직과도 제휴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운동가들은 UN과 각종 국제회의에 진출하였고 제3세계의 투쟁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원주민 운동의 대표적인 이론가의 한 사람인 하와이 대학교 하우나니 카이 트라스크(Haunani-Kay Trask)교수는 하와이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며 투쟁의 성격을 주권의 회복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Native Hawaiian Nationalism in Hawaii," in Smith, Zachary A., and Richard C. Pratt(eds.) *Politics and Public Policy in Hawaii*, pp. 248~250; Haunani-Kay Trask, "Stay Home: Native Hawaiians Want Their Land Back," *The Progressive* (June, 1993), pp. 32~34 참조.

23) Noreen Mokuau, p. 240.

카라마 계곡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운동은 백인 이념집단의 접근에 대해서 일정한 경계를 그었다. 하와이 원주민운동은 인종문제가 계급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하와이 원주민 문제는 급기야 선거의 쟁점이 되었고 이를 지지하는 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받게 된 원주민 운동은 70년대 말에 와서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차원의 성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1978년의 주 헌법회의는 주 헌법 조항의 개정을 통해서 하와이 원주민의 생존권, 언어와 종교와 문화,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헌법회의에 의해서 하와이 사무국(OHA)이 조직되었으며 1981년에는 하와이 원주민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대통령위원회가 임명되었다.

하와이인에 의한 하와이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창설된 OHA는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각 도서지역의 원주민 대표자들로서 구성된다. 사실상 주 정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은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 정부로부터 신탁토지 수입의 20%를 지원 받는다. 그러나 하와이 원주민 사회의 대표조직임을 주장하고 있는 OHA는 법률적 실질적인 권한을 결여하고 있으며 때때로 파괴적인 개발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하나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들은 급료가 없기 때문에 증도에 사퇴하는 경우가 많고 종종 이권개입의 추문에 휩쓸리고 있으며 직함은 정계입문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 비판세력들은 OHA가 정부지원자금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는 조직이며 그것마저도 원주민들에게 수혜가 미치지 않는다고 맹공을 퍼붓는다.²⁴⁾

OHA에 대항해서 강경한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주민운동단체인 「Ka Lahui Hawaii」 (the Hawaiian Nation)는 1987년 자체적인 헌법회의를 소집하고 250명의 대표로서 헌법제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미국정부가 강제합병의 범죄성을 인정하고 하와이 원주민의 자치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며 우선적인 과제로서 인디안과 동등한 대우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회원 가입자수의 급증에 힘입어 이 조직은 1988년 하와이 원주민 자치를 위한 회의를 제안하였는데 OHA가 불참한 상태에서 여섯 개의 주요 원주민 단체가 참여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하와이 원주민과 미국의 관계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였으며 1893년의 하와이왕조전복 이후 최초로 자치정부 수립문제를 하와이인들의 공식적 의제로 상정하였다.

1988년 인디안 문제위원회의 상원의원 이누예(Inouye)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놀룰루로 왔다. 일련의 공청회에서 원주민 운동단체들은 보상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요구하였으며 그들은 연방정부의 인디안 정책을 예로 들어 “민족대 민족”(Nation-to-Nation)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은 인디안 정책의 기초를 後見에서 自治로 방향 전환시킨 후 한시적인 토지사용권 대신에 경제적 지원과 부족적 자치의 권한을 약속하였고 미국정부는 오늘날 300이 넘는 인디안 부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당황한 이누예는 인디안에게 인정되는 자치권이 하와이 원주민에게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결국 시인하였다. 이 때 조직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OHA는 하와이원주민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청사진은 연방

24) Haunani-Kay Trask, "Native Hawaiian Nationalism in Hawaii," pp. 250~252.

정부의 인디안정책 적용문제를 제기할 없이 과거의 강제합병을 비난하고 신탁토지의 관리권이 OHA에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30여개월의 협상 끝에 주정부와 OHA, 이누예의원은 원주민에 대한 보상문제에 합의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하와이 원주민은 1991년에 8000만 달러를 제공받고 이후 매해 850만 달러의 지원을 받게된다. 자금은 OHA를 통해서 제공된다. 또한 신탁지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계속 인정되지만 특정 장소의 경우 농업적, 주거적인 목적에 한해 원주민의 자치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합의는 결국 토지의 반환 대신 금전보상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며 하와이 원주민의 자치권요구를 사실상 봉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OHA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반면 Ka Lahui를 비롯한 여러 원주민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1993년 11월 23일 미의회는 미국의 하와이왕조 전복행위에 대한 사죄성명서를 채택하였고 크린톤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였다.²⁵⁾ 그러나 성명서는 애매하고 다의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주권운동의 지도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야기시켰다.

V. 결 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다인종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갈등해소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다. 인종적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통합의 노력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특정 집단의 우위나 지배는 인종적 불화를 자초하기 쉽다. 따라서 우선 각각의 인종집단으로 하여금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토록 하며, 연후에 공통의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 공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된다. 개별적 정체성을 전제로 한 지방적 정체성의 창조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무지개(rainbow)는 하와이의 상징이며 조화의 세계를 표상한다. 인종적 화해와 협력은 공통의 지방문화를 지향하는 무지개형 사회의 건설에 의해서 실현가능하다.

둘째로, 다인종사회에 있어서 조화의 한계 문제이다. 비록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공통문화가 창출되었다 하더라도, 각 인종집단의 정치적 선택은 최종적으로 인종적 변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점은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합의제 민주주의의(consensus democracy)²⁶⁾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5) 학계에서도 미국의 몇몇 국제법학자들에 의해서 하와이원주민의 주권운동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개진되었다. 가령 1993년 일리노이대학의 프란시스 안소니 보일(Francis Anthony Boyle) 교수는 하와이원주민의 투쟁을 팔레스타인인들의 주권회복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1996년 프린스턴대학의 폭크(Richard Falk)교수는 하와이가 미합중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함으로써 남북전쟁 이후 최초로 연방제의 본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을 야기하였다. Janes Podgers, "Greetings from Hawaii." *ABA Journal* (June, 1997), pp. 74~79.

26)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Arendt Lijphart, *Democracy in Plural Society: A Comparative Explo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idem, *Democracy: Patterns of*

이질적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몫을 부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집단에 의한 집단적인 이익표출과 이익집약을 정상적인 정치과정으로 수용한다. 인종 투표는 이상적인 정치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의 순기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인종사회가 초래하는 원주민의 지위문제이다. 어떤 집단도 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종적 평등의 이념은 원주민의 주인적 지위를 박탈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다원주의나 새로운 지방문화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원주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은, 만일 원주민집단이 충분한 사회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들은 주변집단 혹은 3류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하나의 기회로 맞이 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집단과는 달리 다수 대중에게 세계화는 하나의 덧일 수 있다는 사실이야 말로 하와이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 One Countr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4) 참조.

참 고 문 헌

- Grant, Glen, and Dennis M. Ogawa. "Living Proof: Is Hawaii the Ans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No.530 (November, 1993).
- Hooper, Paul F. *Elusive Destiny: The Internationalist Movement in Modern Hawaii*.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0.
- Lijphart, Arendt. *Democracy in Pluralistic Society: A Comparative Explo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 Mercer, Joye. "Native Hawaiians Push to Extend and Deepen University's Diversity."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August 3, 1994).
- Mokuau, Noreen. "The Impoverishment of Native Hawaiians and the Social Work Challenge." *Health and Social Work*, Vol. 15, No. 3 (August, 1990).
- Podgers, Janes. "Greetings from Hawaii." *ABA Journal* (June, 1997).
- Rohter, Ira. *A Green Hawaii: Sourcebook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Honolulu: Na Kane O Ka Malo Press, 1992.
- Roth, Randall W. *The Price of Paradise*. Honolulu: Mutual Publishing, 1992.
- Smith, Zachary A. *Hawaii: State and Local Government*.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2.
- Smith, Zachary A., and Richard C. Pratt, eds. *Politics and Public Policy in Hawaii*.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Schlesinger, Jr., Arthur M.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Norton, 1992.
- Terry, Edith. "Trouble in Paradise: Ethnic Movement for Self-Rule Gains Momentu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1 March, 1993).
- Trask, Haunani-Kay. "Hawaiians, Americanization, and the Quest for Independence." *Social Process in Hawaii*, Vol. 31 (1984).
- _____. "The Birth of the Modern Hawaiian Movement: Kalama Valley, Ohau." *Hawaiian Journal of History*, No.21 (1987).
- _____. "Native Hawaiians Want Their Land Back." *The Progressive* (July, 1993).
- Wang, James C. F. *Hawaii State and Local Politics*. Hilo: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1982.